

장애학생 이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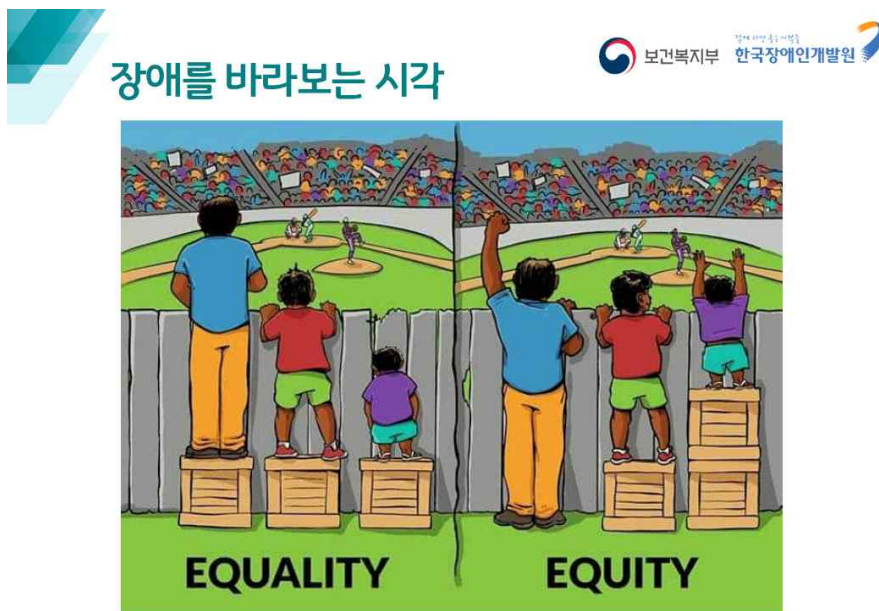
1. 장애의 이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출처 : 미디어스 뉴스, 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97

‘장애’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

1. '평등':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
2. '형평': 똑같은 도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줌



장애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WHO)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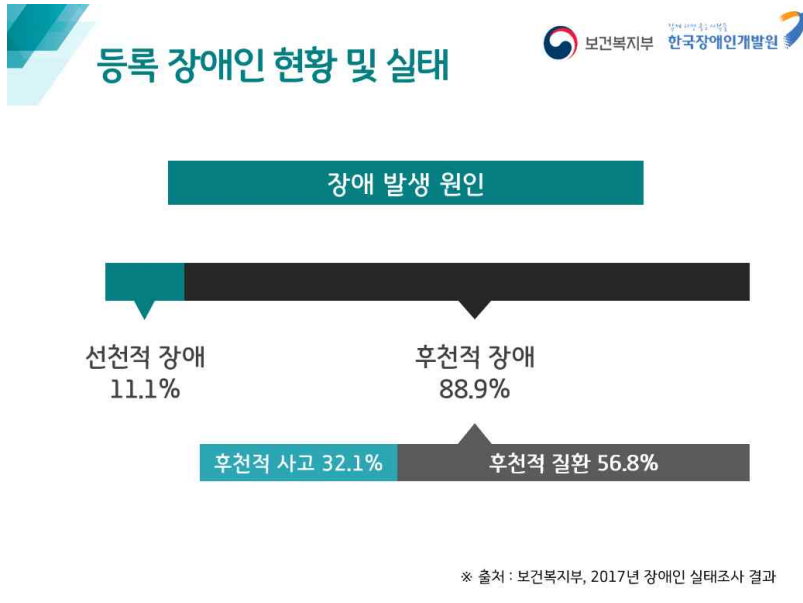
‘사회적 인식 변화’

국제표준화기구(ISO)

수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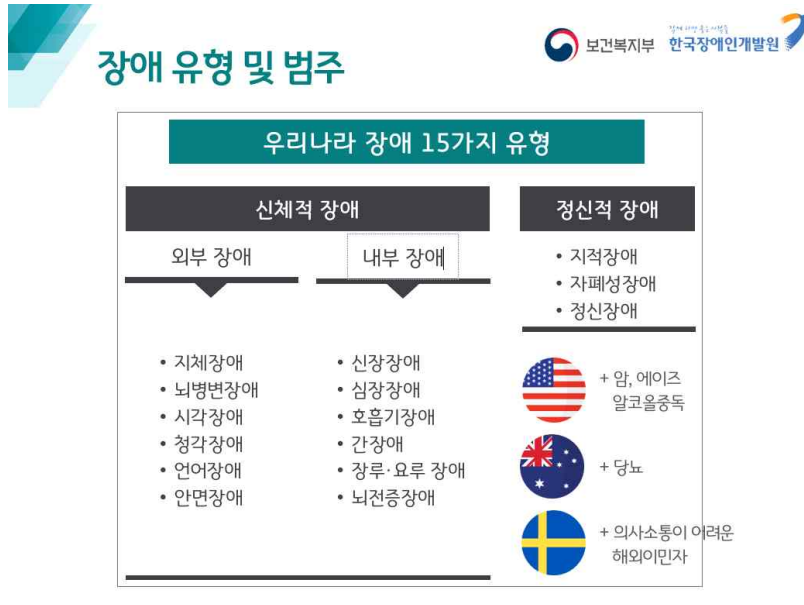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

능동적, 역동적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고령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도 높음

2. 장애 유형 및 범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하지만 미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의 경우 암, 에이즈, 알코올중독, 당뇨,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이민자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의 경우 장애의 유형으로 사회적인 어려움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도 함께 지원한다.

3.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

보건복지부장애인 인권한국장애인개발원

인권

Human Rights

내가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당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장애인 인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

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리는 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는다.

장애인 인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방법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 눈높이 맞추기 • 주위 깊게 들어려는 노력 •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보조기기 제공	• 그림, 사진 활용 • 쉬운 어휘 간단한 문장 사용 • 당사자에게 익숙한 단어 사용 • 상호작용 확인 필요	• 주요 의사소통방법 확인 (수어, 구화, 필담 등) • 얼굴 표정, 몸짓 이용 • 서면 자료 제공



배리어 프리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을 맨 나중에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배리어 프리 사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 ▶ 장애인 화장실 경사 거울
- ▶ 경사로 & 핸드레일



출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 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 하는 것을 의미



4. 장애유형별 에티켓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보행을 도울 때는 갑작스레 옷자락을 잡아 끌거나 어깨를 잡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음식물을 주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급적 시선을 맞추고 대화해 주세요.**

보행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함께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이동을 도울 땐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휠체어를 타거나 키가 작은 지체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 주세요.**

도움을 주려는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봐 주세요.**

보조기기는 **항상 장애인 옆에 두세요.**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함께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지체장애에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발달장애인이 보이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함께 일을 할 땐 **그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함께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나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반말을 하는 것은 **No!** **예의를 지켜주세요.**

한국수어를 모를 땐 필담이나 제스처로 대화를 시도해주시고, 그것이 힘들면 **수어통역사를 불러주세요.**

글로 대화를 나눌 때는 **가급적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 주세요.**

고개를 끄덕인다고 모두 알아들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전달사항은 게시판 등을 사용! **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5. 장애를 보는 관점

첫째 관점은 장애를 의료적/개인적/재활모델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장애를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문제로 정의하며, 장애인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치료받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가지며, 전문가 중심의 접근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장애를 지나치게 신체기능의 손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장애는 곧 비정상이라 생각한다는 점, 따라서 사회가 비장애인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기 보다는 사회의 기준과 기존의 환경에 장애인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장애의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관점은 장애를 사회적/독립생활/고객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장애는 사회구조가 장애를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활동의 불리함과 제약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회적 불리와 제약 때문에 장애인에 사회의 주류에 참여하는데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나 환경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건축물의 장애요소, 편견, 교육기회부족, 낮은 인식 등의 사회구조와 환경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은 서비스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고객이나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 자신이 중심이 되며 사회전반의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장애 유형별 장애에 대한 이해

1) 지체장애인의 이해

지체장애란?

지체장애란 일반적으로는 체간(몸통), 상지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체장애의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고, 후천적 원인은 장애가 태어난 후에 생긴 것인데, 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으로 생기게 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중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중도장애라고 하는데, 중도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부분 교통사고나 일을 하던 중 기계에 의해 또는 등산을 하다가, 화재로 인해, 기타 등등의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라고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2) 뇌병변장애인의 이해

뇌병변장애란?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고,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한다.

뇌병변장애의 원인

뇌병변장애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중에서 주로 발생한다.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렸을 때, 특히 풍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모가 약물중독이 있을 때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산이후에는 뇌막염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

3) 시각장애인의 이해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란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유무 또는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됨으로 장애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경,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의 구별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전맹 또는 완전실명이라고 하고 밝고 어둠은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는 있으나 1미터 앞의 손가락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이라고 한다. 또한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불편한대로 할 수 있는데 책의 보통 크기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를 약시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시력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기도 하고 빛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 색깔있는 안경(렌즈)를 착용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으며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후천적 시각장애는 부분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등 여러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영양결핍, 약물중독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5세 이전에 발생한 전맹아는 사물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다.

시각장애인의 생활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캄캄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소수(약 5%)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길을 다닐 때는 흰지팡이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다닐 수 있다. 안내견은 언제 어디서든 그 주인과 함께 하므로, 어느 곳이든 시각장애인이 가는 곳은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사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안내견의 출입

을 거부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또한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 왜냐하면 안내견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영문을 모르는 주인이 당황하게 된다.

4) 청각, 언어장애인의 이해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에 손상을 입어 듣는 능력에 불능을 가져오게 한 다양한 정도를 포괄해서 말하고, 청각기관의 물리적 내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손상은 농(deaf, deafness)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이 같은 손상에 의해 야기된, 듣는 능력의 불능상태를 농(deaf, deafness)이라 한다. 또한 미국 언어-청각협회(ASHA, 1981)는 청각장애의 정의를 위해 청각손상, 청각장애, 청각불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각손상 : 청각구조나 청각기능이 정상적 범위 밖으로 일탈한 것을 지칭

청각장애 : 청각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수행상에 개인이 겪는 불리한 처지

청각불능 : 청각손상으로 인해 야기된 기능상실

청각장애의 원인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듣게 된다. 하나는 기도청력이라고 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인 외이, 중이를 통하여 내이로 전달되는 방법이고, 또다른 방법은 소리 자체가 머리뼈를 진동하고 이 진동이 이소골이나 내이로 전달되는 골도청력인데, 이러한 청력에 관여하는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청력장애가 된다. 또한 소음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는 소음성 난청이, 노인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올 수도 있다. 청각장애는 대체로 90% 정도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생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리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장애를 갖게 되는데, 특히 언어습득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3세 이전에 청각장애가 되면 음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며, 청각장애인은 구화, 수화, 필담 그리고 손발이나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보청기는 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확성기의 일조이며, 구화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수화는 손의 운동에 의해 표현되는 수화기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고, 지화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장애란?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말의 내용보다 그 말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때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1. 조음 장애
2. 언어 발달 지체
3. 실어증
4. 음성장애
5. 말더듬

언어장애의 원인

언어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혀, 입술, 치아, 인두, 후두 등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뇌성마비나 뇌졸중 또는 뇌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중추에 이상이 있을 때, 지능이 떨어질 때, 난청 또는 농이 있어 언어에 대한 습득경험이 없을 때 나타난다. 그 밖에서 언어는 주위환경과 심리적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을 때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신지체란?

정신 지체란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발생빈도는 전 인구의 약 2~3%로 추정된다.

정신지체의 원인

정신지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원인으로 밝혀진 것만도 250여종에 달한다. 그 중 예방이 가능한 것을 보면, 출산 전 원인으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유전성을 들수 있으며, 산모의 나이가 많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이상, 산모가 풍진이나 독소플라즈마에 감염되거나 또는 납,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되었을 때, 심한 빈혈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조산이나 난산이 원인이 되며, 영유아기에 뇌염 또는 뇌막염을 앓거나 여러 가지 중독, 영양실조, 갑상선호르몬 결핍, 뇌손상 등이 원인이 된다.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란 미국정신의학회 DSM-IV에 의하면, “개인에게 발생되고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상으로서, 이러한 증후군이나 양상은 현재의 고통이나 무능력을 동반하거나 고통스런 죽음이나 통증, 무능력 또는 자유의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상이나 양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현재 개인에게 행동적, 심리적 또는 생물적 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제정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을 하고 있다.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란?

자폐증은 전반적 발달장애로서 처음에는 발달이 느려서 발달지체인듯 하기도 하며 정상발달 율이나 발달체계를 방해받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혼동되기도 한다. 자폐증은 학습을 통해 향상 될 수 있기는 하나 정신지체나 뇌성마비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평생동안 지속되며, 대인 관계적, 사회적, 언어적 결함, 주의력 결함, 심한 위축 및 공격성, 자기자극, 자해적 행위 등 다양한 행동문제로 특징 지워진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활동으로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약하고 상상 및 추리능력이 제한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유아들은 눈맞추기를 하지않고 허공을 응시하기도 하며, 어떤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안아주려는 것을 거절하고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한다.

8) 심장장애인에 대한 이해

심장장애란?

심장은 사람 및 동물의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심장의 좌,우면은 폐면이라고 한다.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장장애를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 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 · 심근변성 ·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심막염)에 의한 것이다.

심장장애의 장애판정

심장장애의 판정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9)신장장애인에 대한 이해

신장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신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10) 간장애인에 대한 이해

간장애란?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등을 한다. 간은 이렇게 체내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간장애인을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자로 정의 하고 있다.

11) 간질장애인에 대한 이해

간질장애란?

간질은 상당히 흔한 병이며,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열성 경련 등 일시적 원인에 의한 일회적인 발작을 제외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 인구의 0.5%, 즉 200명 중의 1명 꼴로 많은 사람들이 간질을 앓고 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신경회로를 통해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간질이란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간질을 유발하는 원인(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발작의 양상도 아주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간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은 다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질은 유전병이 아니다. 다른 유전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 손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간질이 병발될 수는 있으며 간질 자체가 유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2) 안면장애인에 대한 이해

안면장애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13)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루요루 장애란?

장루요루는 직장이나 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을 말한다. 이는 항상 축축하며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색깔은 붉고, 모양은 동그랗거나 타원형이며, 소량의 점액이 분비된다. 또한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자극을 주면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누르고 있으면 곧 멈춘다. 크기나 모양은 개인마다 다르며,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능력이 없어 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부착물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장루요루 장애의 원인

장루요루의 원인에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부분이 선.후천적 질병이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장루 보유자들의 원인 질병은 95% 이상이 '직장암'이나 '장암' 등의 악성 종양이며, 흔치는 않으나 '장결핵', '쿠론씨병', '거결장증', '척추기형', '무항문 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루의 원인 질병의 부분은 '방광암'이며, 흔치않게 '방광 결핵'이나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뇨관이나 요도의 종양, 협착증, 결석 등으로 인해서도 요루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4)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이해

호흡기 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을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쉬는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체계에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세포가 죽는 것이다.

출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

7.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장애는 불구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를 불구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불구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 장애의 반대는 정상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상인을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장애는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장애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장애 부분이 아닌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시하게 됩니다.
- 장애인을 집단화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은 정신력이 강하다든지 장애인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든지 하면서 장애인을 개체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을 만듭니다.
-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성공을 너무 감정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동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합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등